

건교부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항공사 자율 선택”

항공사에 ‘집’ 떠 넘긴 일시 처방

1일 건설교통부의 광주공항 국제선 한시적 잔류 허용 방침에 대해 항공사들은 취항공항 변경이 영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따지고 있다. 또 이번 조치는 국제선 이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광주시와 전남도간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고민에 빠진 항공사=광주~상하이 주 2회(수·토) 운항하는 대한항공, 같은 노선을 매일 운항하는 중국 동방항공, 광주~베이징을 주 2회(화·금) 오가는 아시아나 항공은 건교부 발표 직후 곧바로 잔류나 이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건교부가 오는 3일까지 잔류 여부를 밝혀달라고 해 2일 하루 여유가 있는 데다 본사의 영업전략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항공사들은 국제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저마다 고민을 안고 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을 무안공항으로 옮길 경우 광주공항 국내선 영업망과는 별도로 조치를 이원화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동방항공은 탑승수속이나 비행기 정비 등 항공관련 조업을 대한항공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조를 맞춰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목표~김포노선 운항 인력을 무안공항에 투입하면 영업망 이원화에 따른 고통을 덜 수 있지만 광주가 기업의 모태라는 상징성 때문에 쉽게 이전을 결정하기 어려운 속사정이 있다.

여기에서 항공사들은 광주공항 이전 시는 광주 쪽에서, 잔류 시는 전남 쪽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이라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따라서 항공사들은 서로 입장을 조율한 후 일차원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건교부가 밝힌 광주·무안공항 운영방안은 외견상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원칙’을 지켜

항공사들 영업전략 변경 고민 광주·전남 갈등 불씨도 여전

체면을 살린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선 이전 연기를 허용함으로써 광주시의 반발과 항공사의 내부적 불만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이전 원칙을 밝힌 만큼 국제선 이전 등을 통해 무안공항 조기 활성화를 바라는 전남도의 반발도 무마하는 효과도 기대할 듯 하다.

그러나 중요한 국가 항공정책에 대한 갈등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하기 보다는 ‘항공사 자율 선택’이라는 방편으로 논란을 잠시 잠재우려했다는 지적도 있다. 또 내년 하반기

무안공항으로 옮겨간 뒤 국제선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할 경우 지속 개항과 단일항공정책에 대한 비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셈이다.

◇군 비행장 이전 가시화되나=이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 광주 군 비행장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동의했음을 밝힌 군 비행장 이전 문제가 정권 내부에서 상당히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어디로 옮기고 누가 돈을 대는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과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비행장 이전은 ▲광주공항 국내선 존치 여부 ▲이전 장소 및 재원확보 방안 등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상대적으로 현 정부에서 구체적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이용섭 건교부장관이 1일 오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8일로 예정된 무안국제공항 개항과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등 현안에 대한 건교부 입장을 설명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군표 국제청장 검찰 출두

변양균·정윤재 이어...靑 곤혹

거취 고심...혐의 드러나면 사표 받을 듯

청와대는 1일 현지 국제청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출두한 전군표 국제청장의 거취와 관련, 여전히 ‘원칙’을 강조하면서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조사 과정에서 전 청장이 정상근 전 부산국제청장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변양균 전 정책실장, 정윤재 전 비서관에 이어 또다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점에서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고민’은 전 청장이 자신의 혐의를 워낙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본인 스스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진상규명 시점까지 전 청장에 대한 조치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전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군표 청장에 대한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거듭 원칙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전 대변인은 또 ‘전 청장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혹은 구속 수감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정이기 때문에 답할 것이 없다”는 것이 가장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이라며 비켜갔다.

전군표 청장과 달리 변양균 전 실장의 경우 검찰 소환을 앞두고 사실상 경질한 데 대해서 “변 전 실장은 검찰에 소환되지 않은 한 진상규명 시점까지 전 청장에 대한 조치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전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군표 청장에 대한 거취를 묻는

다. /연합뉴스

“검찰조사가 모든 진실 가려줄 것”

전군표 청장 검찰출두 표정

1일 현지 국제청장으로는 처음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한 전군표 국제청장은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뇌물수수 혐의 등) 다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당초 출두 예정 시간보다 50분 가량 늦은 오전 10시52분께 검은색 에쿠스 관용 차를 타고 부산지검 2층 현관 앞에 도착한 전 청장은 ‘업무보조비 청와대 보고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나’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는 말을 되풀이 한 뒤 “여하튼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내 부덕의 소치로 보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소 긴장된 표정을 한 전 청장은 또 “검찰조사에서 진실을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언론에서 너무 빠르게 나가지 말아 달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언론 보도내용도 보인했다.

검정색 양복에 연두색 넥타이를 맨 전 청장은 그러나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더 이상 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섰고, 곧바로 10층 특수부로 향했다.

현장에는 국제청 직원 20여명이 나와 있었고, 부산지검 직원들도 업무를 잠시



수뢰의혹을 받고 있는 전군표 국제청장이 1일 오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부산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단한 채 1, 2층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현지 국제청장의 첫 검찰소환을 관심있게 지켜봤다. 또 공중과 등 일부 방송사들은 전 청장의 검찰출두 장면을 생중계했으며 취재진 50여명이 아침 일찍부터 부산지검에 나와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대만~제주노선 상당부분 무안공항으로 가져 온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1일 광주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 무안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한 정부 방침을 밝혔다.

—무안공항이 ‘무늬만 국제공항’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연내에 모 항공사에서 타이베이~무안 노선 7편을 개통할 생각이다. 다른 점세기도 연말 전에 새로 뜰 것이다. 대만~제주간의 경우 매주 35편이 제주공항을 이용하는데 제주 공항은 혼잡하다. 무안공항이 상당부분 소화할 것으로 본다.

—광주공항에 11개 노선이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몇 개나 광주에 잔류하는가. ▲항공사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무항공항 이름을 변경할 계획은. ▲‘광주·무안 공항’이나 ‘DJ공항’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준 분들이 있다. 광주와 전남이 결정할 문제로 건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문제 고속도로 개통후 다시 협의”

박광태 광주시장

박광태 광주시장은 광주시민들의 뜻이 반영됐다면서도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문제는 광주~무안 고속도로 완전개통 후 다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못박았다.

—한시적으로 잔류하도록 했는데, 당장 내려가겠다고 한다. ▲시장은논리에 맡기면 무안으로 가는 항공사는 없을 것이다. 광주~상하이 노선도 내려가지 않겠다고 했다.

—건교부는 광주~무안 고속도로 개통후 광주 국제선을 무안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 (무안공항에)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지, 추가 부담은 얼마인지 따져 (다음)정부와 협의할 사항이다.

—평소 광주~전남 상생을 강조했지 않잖나. ▲기존 노선을 가져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광주도 무안의 신규 노선을 개발을 돕겠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광주 우선은 불편하겠지만 멀리 보면 무안공항이 편리”

박준영 전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는 “건교부의 광주·무안공항 운영방침 결정을 계기로 광주의 불편을 없애고 개항은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광주공항 국제선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는. ▲광주 시민이 겪을 불편 등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광주 시민들이 우선은 불편하겠지만 크게 보면 훨씬 편리한 공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이 광주 발전을 가로막는다는데.

—광주시의 한상대회 개최 무산이 국제선 이전 영향이라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말이 안되는 소리다. 광주·전남이 상생하는 방안이 뭔지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무안공항의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도 있다. ▲일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 ‘김대중공항’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다.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겠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11월 3일은 “학생의날”입니다

학생운동에 앞장섰던 선배님들의 열을 다시 한번 기립시다

1929년 10월 광주로 통학하는 열차속에서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자 같은 열차를 타고 있던 한국인 남학생이 이를 말리면서 싸움이 벌어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일본학생은 기만두고 한국인 학생만 일방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광주에 있는 학생이 들고 일어났으며 전국적인 학생운동으로 번졌습니다. 그 날이 11월 3일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항일투쟁을 기념하여 이 날을 학생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우리학생들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선배님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온갖 고난을 겪으며 싸웠습니다. 6·10만세와 광주학생운동, 이모든 나날들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의 나날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이자리에 존재해 희망차게 꿈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배님들의 항일투쟁으로부터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학생의 날이 11월 3일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만큼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것인가? 이제 우리 남들을 위해 고개숙여 다시 한번 지난 그날들을 상기해 봅시다.



- 전라남도 목포교육청
- 국립목포대학교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대 불 대 학교
- 초 당 대 학교
- 한국학원 목포시 총연합회 회장 김순창
- 목포가톨릭대학교
- 동 아 인 재 대 학
- 목포과학대학
- 한국폴리텍V목포대학
- 성 화 대 학교